

2012 마약류 범죄백서

부 I 록

국내 및 각국의 마약류 단속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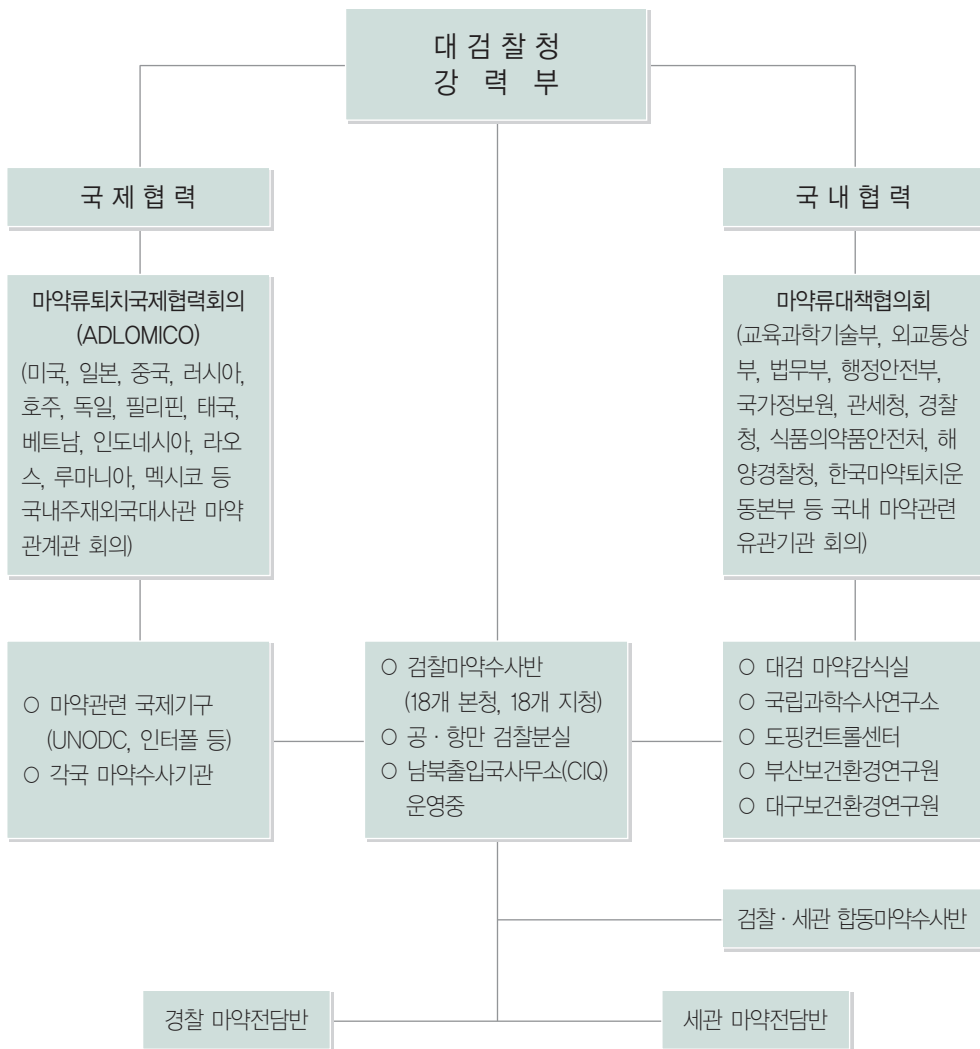


PROSECUTION SERVICE **2012**

2012 마약류 범죄백서

1. 국내 마약류 단속체계

《 국내 마약류 단속체계도 》



2. 중국 마약류 단속체계

가. 국가금독위원회

(國家禁毒委員會 : National Narcotics Control Commi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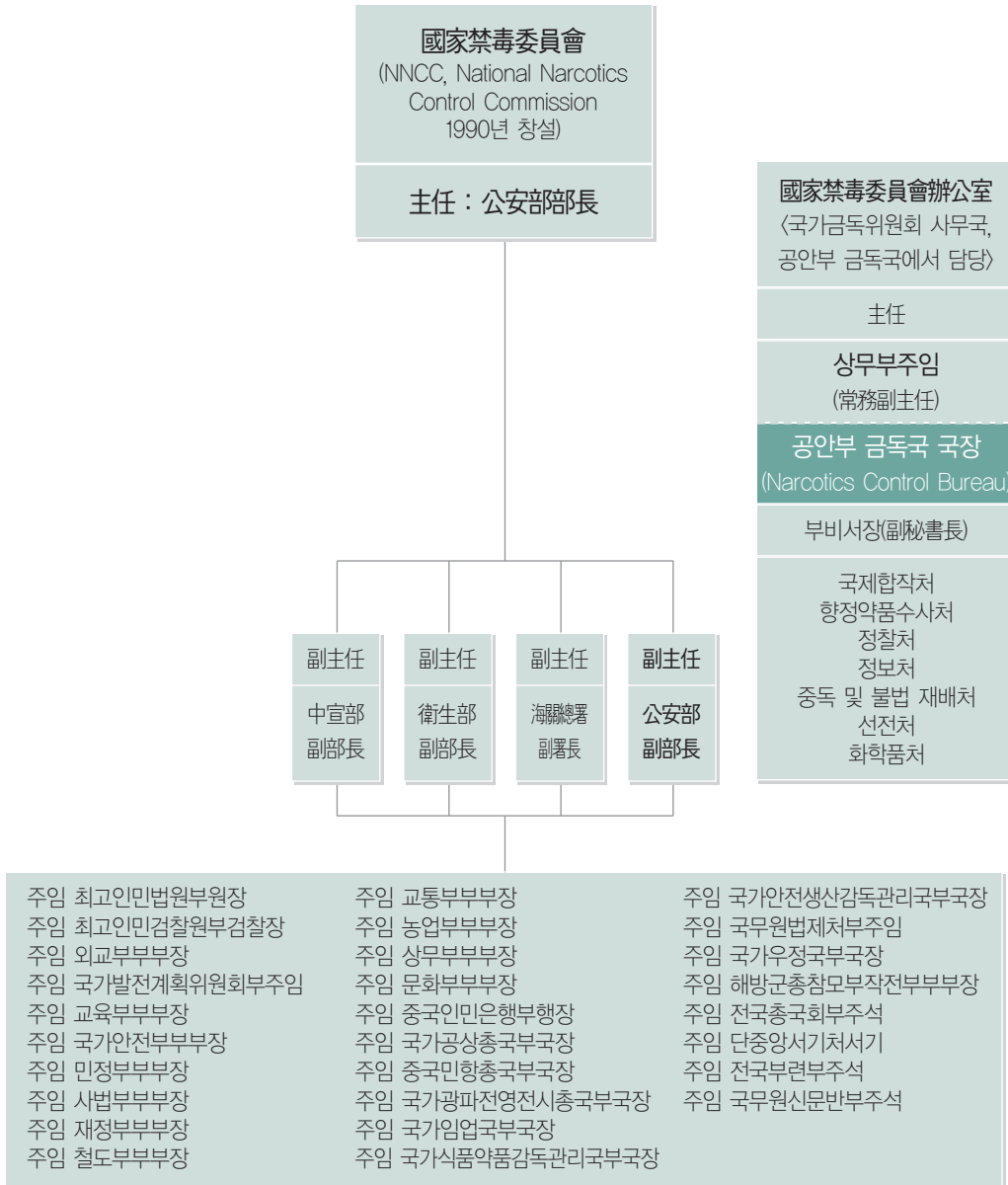
- 구 성 (총 26인)
 - 위원장은公安부장이 겸임
 - 부위원장은 4명으로 중앙선전부 부부장, 위생부 부부장, 해관총서 부세관장, 公安부 부부장으로 구성
 - 위원은 사법부, 행정부 등 마약류 범죄와 관련된 국가기관의 장관 및 차관급 21명(최고인민 법원 부원장, 최고인민검찰원 부검찰장, 외교부 부부장, 무역위원회 부주임, 교육부 부부장, 국가안전부 부부장, 재정부 부부장, 문화부 부부장, 국가약품감독관리국 부국장, 해방군 작전부장, 전국부녀연맹 부주석 등)
- 임 무
 - 마약류 퇴치전략 등 국가적, 전국적 종합대책 수립 및 정책결정
 - 마약류 관련 각 부처 업무 총괄·조정 및 감독

나. 국가금독위원회 사무국(禁毒局)

- 임 무
 - 1990년 창설된 국가금독위원회의 구체적 임무수행을 위해 1998년 신설
 - 국가금독위원회 사무국장은 公安부 부부장(비서장)이 담당하고 있으나 상무부비서장인 公安부 금독국장이 실질적인 전권을 행사하고 있음
 - 금독국 산하에 국제합작처, 2002. 5. 신설된 향정약품수사처, 경찰처, 정보처, 중독 및 불법재 배처, 선전처, 화학품처 등 7개처가 있음

2012 마약류 범죄백서

《 중국 마약류 단속체계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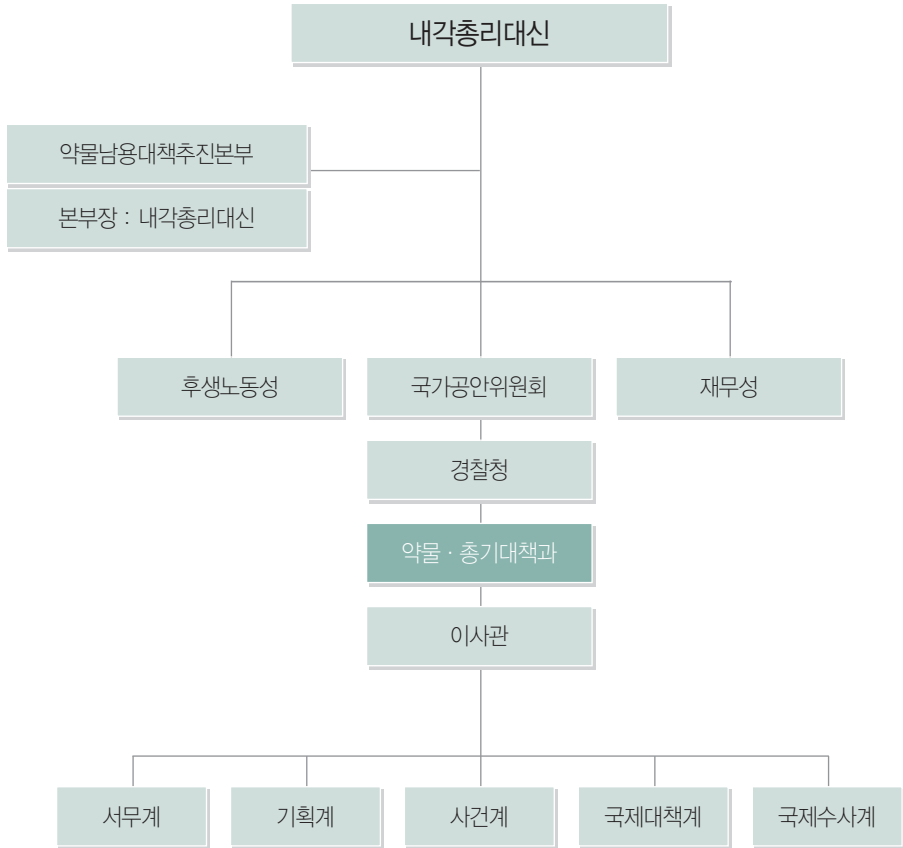
3. 일본 마약류 단속체계

▶ 약물남용대책추진본부

- 구 성 (총 15인)
 - 본부장은 내각총리대신
 - 부분부장은 내각관방장관, 국가공안위원회위원장, 총무부장관, 법무대신, 대장대신, 문부대신, 후생대신, 운수대신
 - 본부원은 외무대신, 통상산업대신, 우정대신, 노동대신, 건설대신, 자치대신
- 임 무
 - 엄정한 처벌 및 효과적 단속을 위한 마약류 관련법규 강화
 - 대국민 홍보·계몽활동 강화
 - 약물남용자에 대한 치료 등 처우개선 사항
 - 국제협력 추진
 - 관계법령 개정 및 각종 제도운영을 견실화하고 마약 관련 연구, 개발활동 추진

2012 마약류 범죄백서

《 일본 마약류 단속체계도 》



4. 미국 마약류 단속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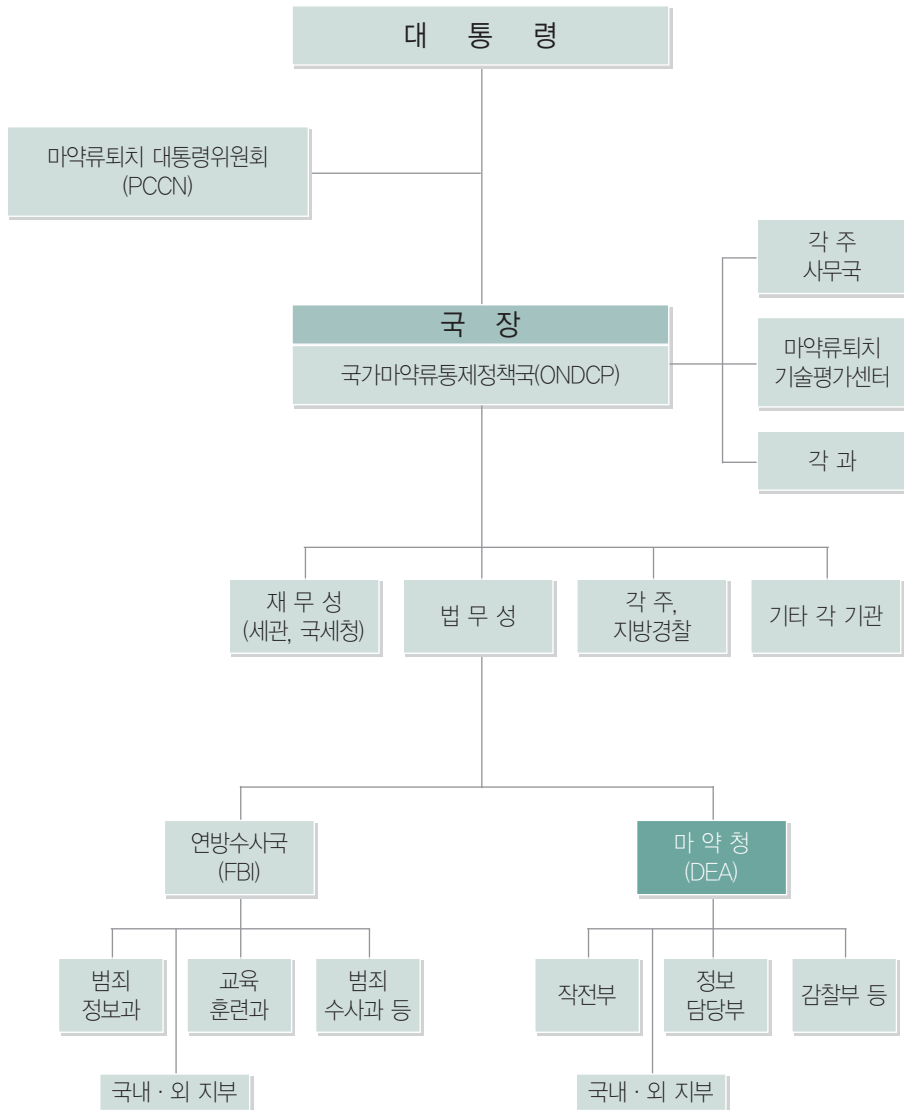
▶ 마약류퇴치 대통령위원회

(President's Council on Counter-Narcotics)

- 구 성 (총 18인)
 - 의장은 대통령
 - 집행위원장은 국가마약류통제정책국(Office of National Drug Control Policy) 국장
 - 위원은 부통령, 법무부장관, 중앙정보국장, 재무장관, 국방장관, 교통장관, 국무장관, 보건장관, 교육장관, UN대표부 관리 및 예산청장, 국가안보국대통령보좌관, 대통령수석보좌관, 대통령자문위원, 합참의장, 부통령국가안보자문위원
- 임 무
 - 국가마약류 퇴치전략(National Drug Control Strategy) 이행관련 및 마약류관련 각 부처 업무 총괄·조정 및 감독
 - 국가마약류퇴치전략 방향 및 종합대책에 대한 대통령 자문 및 보좌
 - 마약정책수립에 관한 주요 회의체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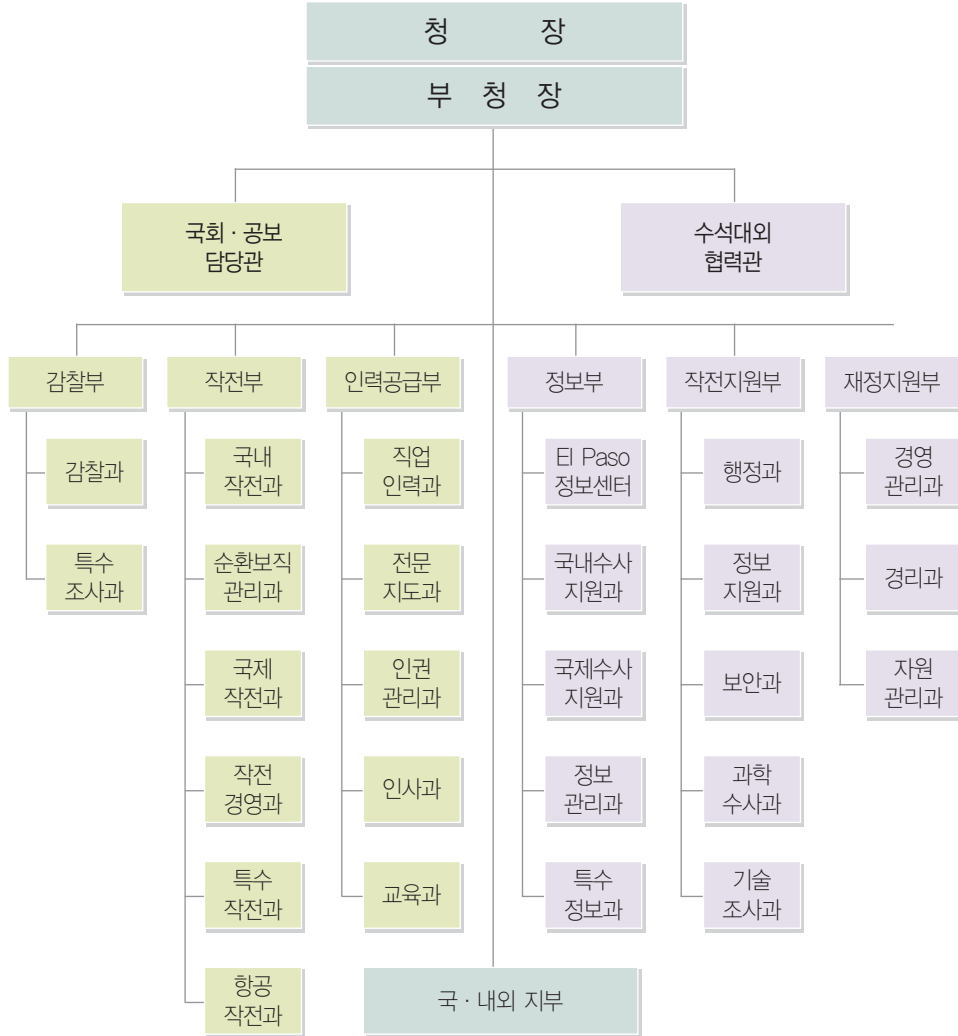
2012 마약류 범죄백서

《 미국 마약류 단속체계도 》



국내 및 각국의 마약류 단속체계

◀ 미국 마약청(DEA) 조직도 ▶



부록 국내 및 각국의 마약류 단속체계

2012 마약류 범죄백서

5. 태국 마약류 단속체계

가. 마약단속위원회(NCB : Narcotics Control Bo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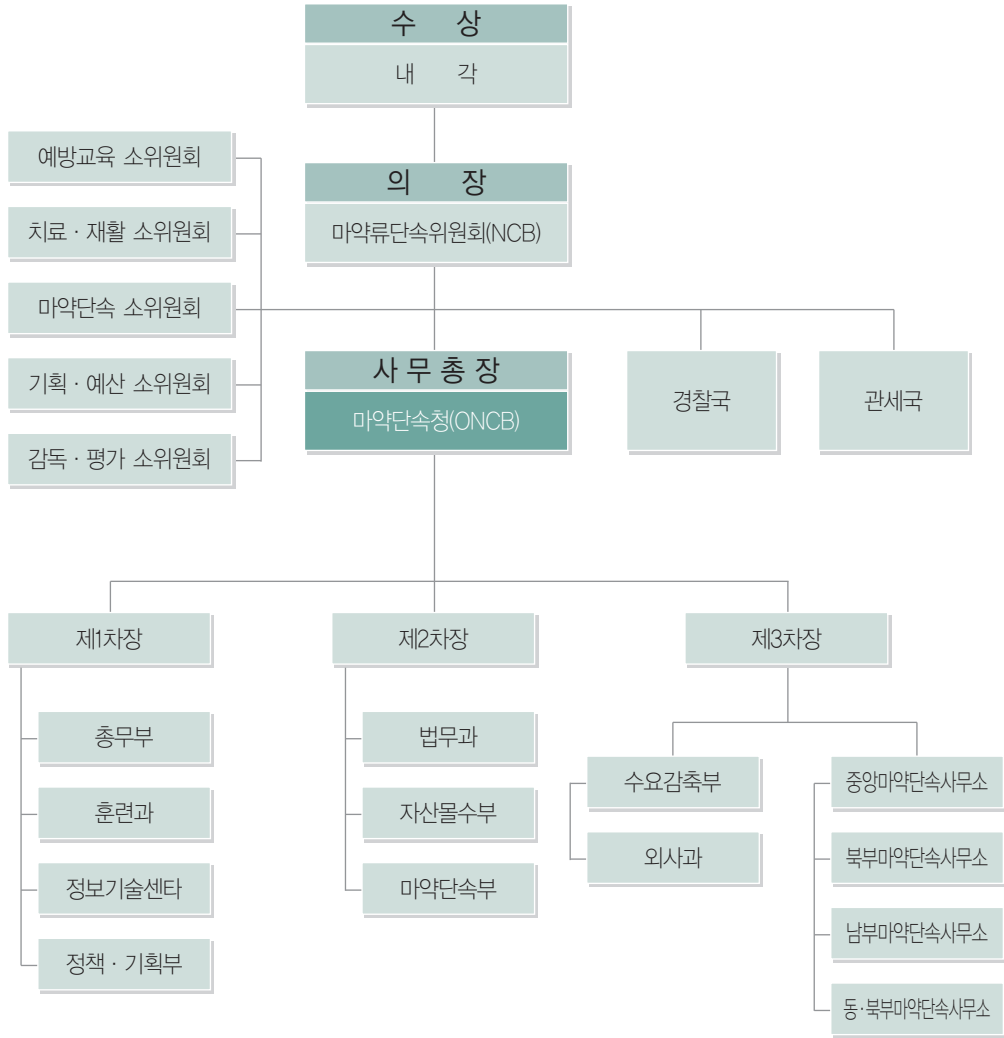
- 구 성 (총 14인)
 - 위원장은 수상
 - 위원은 ONCB 사무총장, 전직장관 6명 (내무부, 교육부, 보건부, 검찰부, 경찰부, 관세부) 및 내각에서 임명한 6명
 - 마약단속청(ONCB)의 사무총장이 집행기능(간사) 담당
- 임 무
 - 마약류 관련 각 부처 업무 총괄·조정 및 감독
 - 마약류 퇴치전략 등 종합대책 수립
 - 내각에 권고할 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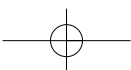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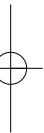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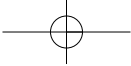
나. 마약류 단속 5개 소위원회(sub-committee)

- 마약단속위원회(NCB)의 구체적 임무수행을 위해 설립
 - 기획·예산 소위원회
 - 감독·평가 소위원회
 - 마약류 예방 소위원회
 - 치료·재활 소위원회
 - 마약류 단속 소위원회

국내 및 각국의 마약류 단속체계

태국 마약류 단속체계도





2012 마약류 범죄백서

부 Ⅱ 록

주요국 마약류 범죄 동향



PROSECUTION SERVICE **2012**

2012 마약류 범죄백서

제1절 중국

1. 마약류 현황

- 중국 내에서 가장 널리 남용되는 마약류는 헤로인으로써 주로 외부에서 유입되고 있는 실정 이고 최근 결정형 메트암페타민(일명 ‘冰毒’) 남용의 증가가 문제시 되고 있는 상황임
- 2011년 180만 명의 마약류 중독자가 관계 당국에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약 65%는 헤로인 중독자이며 약 32%는 ATS 등의 합성마약 남용자로 나타남
- 국제마약밀매조직은 중국을 서남아시아산 헤로인 및 동남아산 ATS의 경유지로 이용하고 있으며 대량의 ATS 및 헤로인의 원료물질이 마약류 밀조에 악용되고 있음
- 메트암페타민은 미얀마에서 주로 유입되어 자국 내에서 대량으로 밀매되는 상황이며 이에 미얀마와의 접경지역인 중국 남부 운남성에서 대량으로 압수되고 있는 실정임
- 중국은 라오스, 태국,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인접국가들과 마약류 퇴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국제 공조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2. 단속 현황

- 2011년 마약류 사범 단속인원은 112,406명으로 전 년에 비하여 약 9.4% 증가하였으며 한 해 동안 약 30톤의 마약류가 압수되었음
- 2011년 414건의 원료물질 전용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1,834톤의 원료물질이 압수되었음. 이중 75% 가량은 밀수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됨

제1절 중국

- 2006년 이전의 마약 밀조시설은 대부분 광둥성 및 복건성 등 남동지역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사천성, 하남성, 호남성, 호북성 등 지역으로 이동 추세임, 2011년 137개소의 마약 밀조시설을 적발하였음(2010년 378건, 2009년 391건, 2008년 244건)

[부록 표-1] 중국의 마약류 압수량

(단위: 톤/정)

마약류 \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결정형)메트암페타민(톤)	6	5.8	5.5	2.4	4.1	14.3(t)
(정제형)메트암페타민(정)	4,021,492	7,620,322	6,255,658	40,640,038	58,443,666	
헤 로 인(톤)	5.8	4.6	4.3	5.8	5.3	7.1
아 편(톤)	1.7	1.2	1.4	1.3	1.0	-

※ 출처 : Global SMART Programme 2011 및 중국금독국 Country Report

2012 마약류 범죄백서

제2절 일본

1. 마약류 현황

- 메트암페타민은 1950년대에 전국적으로 유행하였고, 이후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치는 동안 자국 내에서 가장 널리 남용되는 마약류가 되어 전체 마약류 사범의 약 80% 가량이 메트암페타민 관련 사범임
- 전체 마약사범의 50% 이상이 일본 조직범죄단체인 ‘야쿠자(Boryokudan, 폭력단)’ 조직원으로 파악되고 있음
- 최근 Mephedrone, Salvinorin A 등 이른바 ‘Designer Drugs¹⁾’ 로 불리는 합성마약이 등장함
- 대마초는 일본 내에서 메트암페타민 다음으로 많이 남용되고 있으며 자국 내에서 국지적으로 대마초가 밀경되고 있으나 대부분은 외국에서 밀반입된 것으로 보임
- 종전의 아시아 국가에서 주로 밀반입되던 메트암페타민은 현재 그 유입지가 다변화 되어 유럽, 미주, 아프리카 등지에서도 밀반입되고 있는데 국제마약조직이 일본을 최종 소비지로 선택하고 있는 이유는 타국에 비하여 비교적 큰 마약시장규모와 자국 내의 높은 밀매가격에 있음

1) 디자이너 약물이란 불법 약물의 화학구조를 다소 변형시켜 제조한 합성 도취마약의 총칭으로 흔히 암페타민을 기초로 조제되는데 그 효과가 장시간 지속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많은 손상을 주며 사용자의 성격을 변화시킴

제2절 일본

2. 단속 현황

- 2012년 마약사범 수는 13,466명으로 전년에 비하여 약 2% 정도 감소하였고 전체 마약사범의 약 86%는 메트암페타민 관련 사범이었으며 약 12%는 대마초 관련사범이었음
- MDMA, 코카인, 헤로인, 아편 및 기타 마약류 사범은 전체 마약류 사범의 약 2.4%인 286명으로 집계되었음

[부록 표-2] 일본의 마약사범 단속 현황

(단위: 명)

마약류 \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메트암페타민	12,009	11,025	11,655	11,999	11,852	11,577
대마초	2,271	2,758	2,920	2,216	1,648	1,603
코카인	99	98	116	105	82	61
헤로인	13	13	15	17	18	30

※ 출처: 일본경찰청 제공 Country Report

[부록 표-3] 일본의 마약류별 압수량

(단위: kg)

마약류 \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결정형)메트암페타민	359.0	397.5	356.3	305.5	338.8	348.5
대마초	503.6	375.1	195.1	144.9	134.7	301.8
대마수지	56.9	33.1	17.2	8.8	28.0	41.7
코카인	19.2	5.5	11.3	6.9	28.7	6.6
헤로인	2.0	1.0	1.2	0.3	3.5	0.1

※ 출처: 일본경찰청 제공 Country Report

제3절 미국

1. 마약류 현황

- 미국에서 가장 빈번하게 남용되는 마약류는 코카인과 대마초가 있으며 코카인은 크랙(Crack) 형태로 미국 내 거의 모든 도시에서 남용되는 상황임
- 코카인은 주로 멕시코 또는 남미의 코카 생산지에서 밀반입되고 있고 마약밀매조직인 카르텔은 비행기, 선박, 잠수함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코카인을 유입하고 있음
- 자국 내에서 소비되는 대마초의 대부분은 멕시코를 통해서 밀반입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하와이, 켄터키 및 테네시의 4개 지역에서 대마초가 재배되고 있음
- 메트암페타민은 멕시코 접경지역에서 밀매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자국 내의 밀조는 원료물질 통제를 강력하게 추진한 결과 크게 감소하고 있음

2. 단속 현황

- 미국의 마약단속관련 연방기관에는 마약청(DEA), 국토안보부(DHS), 연방수사국(FBI) 등이있으며, 특히 마약청은 (2012년 현재) 국내에 21개 지역본부(Division)산하 226개 사무소(Field Office)는 물론 해외 65개국 85개 사무소를 운영하며 '국제마약단속회의(IDEC)' 개최를 통해 마약류 범죄 정보를 공유하여 국제적 마약범죄 척결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
- 코카인은 2010년 약 30톤이 압수되었으며 점차 그 압수량이 늘어 2012년에는 약 36톤이

제3절 미국

압수되었고 대마초는 이와는 반대로 2010년 약 723톤이 압수되었으나 점차 줄어 2012년에는 약 354톤이 압수되었음(美마약청 실적 기준)

[부록 표-4] 미국의 마약류 단속 현황

(단위: 명)

구분 \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검거자 수	29,933	28,555	31,701	30,922	32,408	30,476

※ 출처: 美마약청 홈페이지

[부록 표-5] 미국의 마약류 압수량

(단위: kg)

마약류 \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코 카 인	98,299	50,474	50,819	30,058	33,272	36,001
대 마 초	360,728	662,145	671,557	723,716	573,195	354,023
메트암페타민	1,112	1,519	2,012	2,187	2,481	3,898

※ 출처: 美마약청 홈페이지

제4절 태 국

1. 마약류 현황

- 태국 내에서 주로 남용되는 마약류는 정제형 메트암페타민(일명 아바)인데 최근 결정형 메트암페타민의 남용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임
- 태국 정부의 강력한 단속으로 자국 내에서 대량의 마약 밀조 사례는 보고되지 않고 있으나 헤로인과 메트암페타민이 꾸준히 유입되어 자체적으로 소비되거나 제3국으로 밀매되고 있는 실정임
- 1999년 이후 헤로인은 자국내에서 밀조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 양귀비는 태국 북부 지역인 치앙마이에서 소규모로 밀경작되는 수준으로 더 이상 크게 문제시 되고 있지 않지만 황금의 삼각지대에서 유입되는 헤로인이 태국을 경유지로 하여 국제 시장에 밀매되는 상황이 문제시 되고 있음
- 대마초의 밀경작은 지난 25년간 크게 줄어들었으며 자국 내에서 압수되는 대부분의 대마초는 인접국가에서 유입되어 자체 소비 되거나 제 3국으로 다시 반출되고 있는 상황임

2. 단속 현황

- 2009년 3월 마약류 퇴치를 위한 엄중한 조치를 선언한 태국정부는 국내 마약류 통제 및 감축을 위한 '5개 울타리 정책' 을 시행중에 있음
 - 국경지역 마약류 밀수 감시강화 및 밀거래 예방

제4절 태국

- 지역공동체 내 마약류 면역강화 활동
 - 사회 내 마약류 폐해 등 부정적 요소 제거 및 질서 통합 강화
 - 마약류로부터의 학교 내 청소년 보호
 - 가정내 마약류 면역강화를 통한 사회 기초구성원 형성
- 2012년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212,667명으로 전년에 비하여 14% 줄어들었으나 정제형 메트암페타민의 압수량은 전년 대비 약 72% 증가하여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님

[부록 표-6] 태국의 마약사범 단속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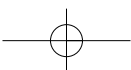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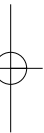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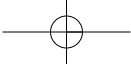
분류 \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범 죄 건 수 (건)	106,599	141,665	174,509	181,981	233,024	199,699
검 거 자 수 (명)	116,333	153,407	188,803	196,756	248,128	212,667

※ 출처: 태국 마약청 제공 Country Report

[부록 표-7] 태국의 마약류별 압수량

마약류 \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야 바 (단위:백만정)	14.1	22.2	27.4	54.1	55.0	95.1
(결정형)메트암페타민	48	54	213	705	1,241	1,603
헤 로 인	295	200	143	138	548	127
대 마 초	14,962	18,894	18,089	18,023	12,914	24,373
코 카 인	19	12	9	31	32	18

※ 출처: 태국 마약청 제공 Country Report



총괄

대검찰청 강력부장

김해수

기획

대검찰청 마약과장

이철희

편집

대검찰청 마약과

정병수	김용권
김태현	박기영
김현수	김현송
남은호	손형수
안민석	한태환
홍승표	박희조

2012 마약류 범죄백서

2013년 8월 10일 인쇄

2013년 8월 10일 발행

발행 : 대검찰청 ☎(02)3480-2292-5

인쇄 : 도서출판성민 ☎(02)571-5700

